

#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경험과 방법

---

김덕우(북한학연구소) / 최은정(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목차

- 1)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Survey)에서 '면접조사(Interview)' 방법이 갖는 의미
    - 라포 형성의 중요성: 눈덩이 표집과 설문 참여하기
    - 접촉 및 설문의 어려움: 조사원 만나기와 설문지 읽기
  - 2) 설문지에 담기지 않았던 이야기: 내가 기억하는 목소리
-

**Q. 왜 정량질문지를 활용한 양적조사  
에서, 조사원의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방식이 필요한가?  
(⇔ 심층조사사업)**

---

김덕우

# 라포 형성의 중요성-1

- 직전년도 직통생 입국현황과 같은 모집단의 추계,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조사사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소개해준 제한된 조사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 IRB 심사 결과에 따라(발급일정 변동) 약 100여명의 직통생을 2명의 조사원이 매해 7-8월, 4주~1달의 기간 안에 조사한다. 조사대상자의 적극적인 지인 소개(눈덩이 표집)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에 필요한 표집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 (연구원은 소개비 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직통생 지인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라포 형성의 중요성-2

1. Yanjie Bian, 1994; 19-20, Earl R. Babbies, 고성호 외 역, "사회조사방법론 제11판",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7, p. 343 재인용

- (여기) 사람들은(중국\_정리자) 권위주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것에 관해 일반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예를 들어, 1966년과 1976년 사이에 있었던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전국에 걸쳐 있었던 급진적인 정치적 안건들과 긴장 때문에 중국인의 생활경험, 특성, 공산당 정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서베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

## 라포 형성의 중요성-2

사업 참여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본인 신분 노출 및 개인정보 수집, 사례비 지급에 대한 불신(익숙하지 않은 외부 활동)은 직통생 북한이탈주민과의 설문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 북한이탈주민 직통생의 생활사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조사원들의 방문 및 조사 전 상호작용은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

## 접촉의 어려움

- 조사대상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들로 일정 및 조사 대상자 수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조사연구원은 충분한 양의 설문지 및 동의서를 항상 준비해야 하며, 하루 2건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근거리 지역으로 편성하되 앞뒤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 설문지 읽기의 어려움

- 조사에 활용되는 설문지는 북한을 잘 이해하는 연구자가 구성하고, 조사 실행 전 충분한 파일럿 조사, 이전 조사 시에 축적된 경험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독해가 쉽게 만들어진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문지에 기술된 설명 만으로는 유의미한 응답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이 표기될 수 있도록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

# 설문지 읽기의 어려움

## > 예시

- 60대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은 설문지의 작은 글자크기로 인하여, 안경을 착용해도 글자를 읽기 어렵다며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 설문조사 진행 중 “공안기관, 절충” 등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 모두 골라 표시해 주세요(⇔ 한 개를 골라 표시해 주세요). 답변에 따른 문항 이동(없었다 » 질문 5 이동), 총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숫자로 적어주세요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 설문지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 : 내가 기억하는 목소리

---

최은정

# 조사원의 목소리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닿으면-



**“오늘 선생님 만난다고, 한 달 만에  
처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랑  
마주 앉아서 말하는 것도 한 달 만이에요.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

**“출퇴근 할 때, 집까지 자주 차를 태워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교통비 40만원을**

**제외한 후 월급을 주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원래 남한에선 다 이렇게 하는 건가**

**요?”**

---

“남한에 오면 조금 외롭긴 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부모님께도 덜 미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되네  
요.

남한에 도착해서.. 딱 일주일 좋았어요.  
그 이후론, 매일매일 눈물이 나요..”

---

# 배수로 통과해 한강 헤엄쳐 북으로...탈북땐 7시간 수영

입력 2020.07.27. 오전 11:38 · 수정 2020.07.27. 오후 3:38 기사원문



152



109



가가



잠적 한달 전 지인 유튜브 출연해 탈북 경로 등 증언  
이중고압선·지뢰밭 거쳐 7시간 반 수영해 탈북



#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다”



MMS  
오후 9:44

선생님~  
저 기차 잘 탔어요, 서울 도착해서 소식  
전할게요^^

네! 고마웠어요! 조심하다녀가요!  
오늘인상깊었어요!건강하셔잘지내요!♡♡♡

오후 9:50

무사히가주셔고마워요!  
오늘찍은사진좀보내줘요! 좋은밤되세요!

오후 11:02



MMS  
오후 11:11

선생님^^ 예쁜 사진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후 11:18

선생님, 저야말로 오늘 저와의 만남을 인상 깊게  
느껴주셔서^^

오후 11:19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오후 11:20

아드님 생각에 어려우시겠지만,,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

오후 11:20

아픈마음걱정해주니마음이**짠**해지네요!고마워요!  
!

오후 11:29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협조 가능합니다  
시간되실때 연락주세요.

오전 9:56

앞으로 우리 은정이들끼리 연락 하면서 잘  
지내도 될가요?

화이팅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

오전 9:48

아이구, 별희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전 9:49

네 선생님~

오전 9:49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줘서~ 일요일  
아침에 가슴이 뭉클해요~TTT

오전 9:50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신경써 주셔서  
저도 많이 행복 합니다.

오전 9:51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

더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이에요~

오전 9:53

아닙니다. 저는 마음으로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전 9:54



해마다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움주셨던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방문객' 중 -